

# 은퇴 만족도(Retirement Satisfaction)

## 결정요인 분석

백 은 영 (경희사이버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며

최근 은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준비된 은퇴는 행복한 제2의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한 통계청 조사결과(2004)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생활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건강이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두 문제는 외로움/소외감 등에 비해 상당히 많은 비율의 노인들의 문제(약 40%, 30% 이상)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건강과 부(wealth)는 일반적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차적인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은퇴 후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가 없다.

사회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점점 확대되는 노인층의 경제적인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에 기존 은퇴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은퇴 후 필요 소득이 얼마인지를 산정해 은퇴 자금의 적정성 및 충분성에 관한 연구들(e.g., 원종욱, 2000; 안중범·전승훈, 2005; 여윤경, 2005; 백은영, 2008)이 수행되었다. 경제적 복지가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으나 전부일 수는 없다(Frey & Stutzer, 2002). 따라서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영위하는데에는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들 역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생활만족과 관련한 연구들은 포괄적 의미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연구하거나 ‘성공적 노후(successful aging)’라는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각도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만족에 대해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어 연구한 바는 드물며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행복한 은퇴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된 바는 거의 없다. 은퇴의 개념은 노화나 고령의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 달라진 노동환경 등에 따라 고령이 아니더라도 조기에 은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노화가 생의 연속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과정이라면 은퇴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고, 일이나 역할, 소득과 관련한 개념이므로 행복한 은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은퇴설계를 할 때 행복한 은퇴생활을 위해 어떠한 요인들에 중점을 두어 은퇴설계를 할 것인가가 주된 연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노인의 생활만족도 보다는 다소 범위가 제한되 은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화된 개념으로써 은퇴만족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에 초점을 두어 은퇴만족도(retirement satisfaction)는 어떠한지, 어떠한 요인들이 은퇴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은퇴를 준비하는 개인들에게 행복한 은퇴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참고할 만한 정보와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그 중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우리나라 사회고령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45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패널데이터로 고령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자료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고령화 패널조사는 다른 데이터와는 달리 은퇴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고 은퇴만족도 등 은퇴와 관련된 정보들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본 연구 수행에 적합한 자료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고령화패널조사에 포함된 중고령자 중 은퇴자로 한정하였으며, 여기서 은퇴자란 퇴직이나 노령의 개념이 아닌 ‘완전 은퇴’한 경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은퇴의 정의는 고령화패널조사의 은퇴의 정의에 따라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한국노동연구원, p 127, 2007)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전체 10,254명 중 총 2,027명의 은퇴자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2. 변수의 측정 및 분석 방법

종속 변수는 은퇴만족도로 은퇴자들이 은퇴 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관해 전반적으로 측정된 것으로서 만족의 수준은 3단계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은퇴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주관적만족도, 사회활동 및 일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자세한 측정방법은 <표 1> 참조).

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은퇴자들의 은퇴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하였고, 은퇴자들의 전반적인 은퇴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열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은퇴만족도는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의 3단계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서열을 나타내 줄 뿐 각 단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없으므로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일 때 유용한 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보다는 서열형 로짓분석이 보다 더 적합하다(Kennedy, 1998).

<표 1> 변수 측정 방법

종속변수	측정방법
은퇴만족도	현재 은퇴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불만족= 1 만족=2 매우만족=3
독립변수	측정방법
교육수준	
초등학교졸	초등학교졸일 경우=1; 아닐 경우=0;
중졸	중졸일 경우=1; 아닐 경우=0
고졸	고졸일 경우=1; 아닐 경우=0
대졸이상	대졸이상일 경우=1; 아닐 경우=0
성 별	남성=1; 여성=0
연령(60세 미만)	
60세 - 70세미만	60대일 경우=1; 아닐 경우=0
70세 - 80세미만	70대일 경우=1; 아닐 경우=0
80세 이상	80대일 경우=1; 아닐 경우=0
자녀수	총 자녀수 (연속변수)
결혼상태(무배우자)	
유배우자	유배우자=1; 이혼, 사별, 별거, 싱글=0
주택소유여부(무)	
주택소유	주택소유자=1; 주택미소유자=0
소득	작년 한해 가구 총소득 (단위: 만원)
총자산	가구 총 순자산 (단위: 만원)
부채유무	부채가 있을 경우=1; 없을 경우=0
사적이전(무)	자녀(친지)로부터 소득이 있는 경우=1; 없는 경우=0
연금소득(무)	개인연금 및 공적연금 소득 유=1; 무=0
자산소득(무)	자산(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으로부터의 소득 유=1; 무=0
건강상태	매우 좋음=5; 좋음=4; 보통=3; 나쁨=2; 매우 나쁨=1;
경제상태만족도	11 단계로 측정; 점수가 클수록 만족
자녀관계만족도	11 단계로 측정; 점수가 클수록 만족
종교모임	참여=1; 불참=0
친목모임	참여=1; 불참=0
여가/문화/스포츠 참여	참여=1; 불참=0
동창회/향후회등 참여	참여=1; 불참=0
자원봉사 참여	참여=1; 불참=0
소일거리있음(무)	소득이나 수입이 있는 소일 거리를 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0
경제적 이유로 일할의사	있음=1; 없음=0
기타 이유로 일할의사	있음=1; 없음=0

### Ⅲ.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징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남성이 57% 정도로 여성보다 다소 많았고 교육수준은 다소 낮은 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50%에 달하였다. 연령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가 은퇴자로 고령자와는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은퇴자의 22% 정도는 60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74%로 나타났고 은퇴자의 75%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부채가 있는 은퇴자는 전체의 18%였고 소득유형별로는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가 61%정도로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보다 높았고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20%정도, 자산소득이 있는 은퇴자는 약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사회활동 및 일과 관련된 변수들을 보면, 은퇴자들이 많이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2,027)

	변 수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1,161	57.28%
	여	866	42.72%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014	50.02%
	중 졸	299	14.75%
	고 졸	451	22.26%
	대졸 이상	263	12.97%
연 령	60세 미만	443	21.85%
	60세이상 70세 미만	724	35.73%
	70세이상 80세 미만	685	33.79%
	80세 이상	175	8.63%
주택소유유무	주택 소유자	1,496	73.80%
	미소유자(전, 월세, 기타)	531	26.20%
결혼상태	유배우자	1,526	75.28%
	무배우자(사별, 별거, 이혼, 싱글)	501	24.72%
부채유무	부채가 있는 경우	368	18.15%
사적이전 소득	소득이 있는 경우	1,237	61.03%
연금소득	소득이 있는 경우	412	20.33%
자산소득	소득이 있는 경우	302	14.90%
종교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519	25.60%
친목모임	활동을 하는 경우	1,014	50.02%
여가/문화/스포츠 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	133	6.56%
동창회/향후회등 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	380	18.75%
자원봉사 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	56	2.76%
소일거리있음(무)	있는 경우	61	3.01%
경제적이유로 일할의사	있는 경우	170	8.39%
기타이유로 일할의사	있는 경우	154	7.60%
		평균	표준편차
연령(45세~98세)		67.13	9.52
자녀수		3.29	1.58
총소득		1,254.41	2,195.11
총순자산		6,384.44	15,216.08
주관적 건강상태		2.68	1.06
경제상태만족도		45.51	26.48
자녀관계만족도		73.38	21.59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친목모임에의 참여로 50%정도가 이에 참여하고 있었다. 종교모임에 참여하는 경우는 26%정도였으며 여가/문화/스포츠 활동을 하는 경우나(6.6%)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2.8%)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현재 소득이 있는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은퇴자도 3%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또는 기타 이유로 일 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각각 8.4%, 7.6%로 나타났다. 총소득은 평균 1천2백54만원 정도였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의 2.7 정도로 나타나 보통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은 중간 이하로 나타나 보통 수준보다 다소 불만족하는 정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자녀관계에 관한 만족도는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자의 은퇴만족도

은퇴자들은 은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이 절에서는 은퇴자들의 은퇴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은퇴자들의 경우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전체 은퇴자의 9% 정도에 불과한 반면 은퇴 후가 은퇴 전에 비해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절반이 넘는 55%에 달하였다. 또한 은퇴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52%)가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조사대상자의 은퇴만족도

	은퇴만족도	빈도	%
은퇴전/후 비교	은퇴후 > 은퇴전	183	9.03
	은퇴전/후 비슷함	739	36.46
	은퇴후 < 은퇴전	1,105	54.51
은퇴 만족도	매우만족	87	4.29
	만족	1,058	52.20
	전혀만족하지 않음	882	43.51

## 3. 은퇴만족도 결정 요인 분석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 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주관적 만족도 요인, 사회활동 및 일 관련 요인이 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먼저 인구통계학적 요인 중에서는 결혼상태를 제외하고 교육수준, 성별, 연령 및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은퇴자가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보다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은퇴에 대해 보다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이상인 경우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경우보다 2배 이상 만족도가 높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은퇴에 대해 불만족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미만의 은퇴자와 비교해 볼 때 80세 이상인 경우 은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많을 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았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주택소유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와 비교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은퇴자의 경우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1.5배 정도 더 높았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았으며 부채가 있는 경우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은

<표 4> 은퇴만족도 결정 요인

변수	Estimate	SE	Odds Ratio
교육수준(초등학교졸) <sup>1</sup>			
중졸	0.364	0.159	1.438*
고졸	0.621	0.148	1.860***
대졸이상	0.744	0.182	2.104***
성 별(여)			
남	-0.446	0.132	0.640***
연령(60세 미만)			
60세 - 70세미만	-0.017	0.159	0.983
70세 - 80세미만	0.278	0.176	1.321
80세 이상	0.912	0.245	2.489***
자녀수	0.089	0.040	1.093*
결혼상태(무배우자)			
유배우자	0.084	0.141	1.087
주택소유여부(무)			
주택소유	0.439	0.130	1.551***
소득	6.50E-5	2.40E-5	1.000**
총자산	8.55E-6	8.64E-6	1.000
부채유무	-0.374	0.137	0.688**
사적이전(무)	0.270	0.116	1.310*
연금소득(무)	0.112	0.132	1.119
자산소득(무)	0.125	0.146	1.133
건강상태	0.525	0.057	1.690***
경제상태만족도	0.243	0.026	1.275***
자녀관계만족도	-0.016	0.020	0.984
종교모임	0.281	0.122	1.324*
친목모임	0.136	0.109	1.146
여가/문화/스포츠 참여	0.365	0.214	1.440
동창회/향후회등 참여	0.310	0.147	1.363*
자원봉사 참여	-0.083	0.323	0.920
소일거리있음(무)	0.192	0.305	1.211
경제적 이유로 일할의사	-1.948	0.253	0.143***
기타 이유로 일할의사	-1.243	0.196	0.289***
상수3	-7.389	0.336	--
상수2	-3.126	0.283	--
Chi-square		723.679***	

<sup>1</sup>( )안은 준거집단을 의미

\* p<.05 \*\* p<.01 \*\*\* p<.001

낮았다. 사적이전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은퇴에 대해 만족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은퇴만족도는 높았고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은퇴만족도도 높았다.

사회활동 및 일과 관련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종교모임에 참여하거나 동창회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은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기타 이유로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는 은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은퇴에 만족할 확률이 약 86%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은퇴자들의 전반적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수로는 연령 변수를 들 수 있겠는데 60세 미만인 은퇴한 사람보다 80세 이상인 은퇴자들이 은퇴만족도가 거의 2.5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아진다는 기존의 노인 대상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대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5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에 비하면 80대의 경우는 은퇴라는 사건을 비교적 더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 변수와 앞서 언급한 경제적 이유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 건강상태, 주택보유여부도 은퇴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는 고령화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2,027명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다음은 주요 결과에 따른 결론이다.

첫째, 은퇴자들의 은퇴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은퇴자들은 전반적으로 은퇴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혀 만족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43.5%). 특히 은퇴전과 비교하여 볼 때 은퇴 후가 은퇴 전에 비해 좋다고 한 경우보다(9.03%) 더 나쁘다고 한 경우가(54.51%) 훨씬 많아 은퇴자들의 은퇴만족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은퇴자들의 은퇴 만족도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5%이고 불만족하는 경우는 9%에 불과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결과로 (HRS 2004 결과, 신현구, 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 은퇴자들이 은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요인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어떠한 요인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은퇴만족과 관련하여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이 은퇴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 성별, 연령 및 자녀수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은퇴만족도가 높아 기존의 노인대상 만족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e.g., 백지은·최혜경, 2005). 자녀와 관련한 부분은 자녀수가 은퇴만족도를 9% 정도 높이는 데 그치고 있다면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 소득은 은퇴만족도를 더 많이(31%정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요인 역시 은퇴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했거나 은퇴 이후에도 부채가 있을 경우는 은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는 재무적 측면에서 은퇴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은퇴 이전에 모든 부채는 상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이 기본적 사항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은퇴 이전에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은퇴 후에는 은퇴 전과 비교할 때 일정한 소득이 없으므로 부채가 남아있는 상황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어 만족도를 낮추는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은퇴자의

경우 주택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선행 연구결과(백은영, 2008)와 주택자산을 제외하면 충분한 은퇴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가 많지 않다는 연구결과(여운경, 2005)들을 볼 때 현 은퇴자들에게는 주택자산이 거의 그들의 은퇴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충분한 은퇴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만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경제적 요인 중 총순자산의 크기는 은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은퇴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무적 은퇴설계를 할 때 절대적 자산의 크기를 무조건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개개인별로 상황에 맞는 재무목표를 세워 달성이 된다면 절대적 크기에 상관없이 만족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두가 무조건 많은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행복의 척도이기 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수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이유이든 비경제적 이유이든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은퇴한 경우 은퇴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은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서 경제적 이유로 일할 의사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은퇴만족도를 86%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타 이유로 일할 의사가 있는데 은퇴한 경우도 은퇴만족도는 약 70%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은퇴하게 되는 경우 은퇴만족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변수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만족도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하나의 척도로 간단히 측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노인의 생활만족이라든지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규명한 것처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 역시 면밀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규명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을 모두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포함하지 못한 변수들이나 보다 심도있게 규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은퇴자들의 은퇴설계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백은영 (2008),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4(2), 27-51.  
 백지은·최혜경(2005), “한국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신현구(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 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노동리뷰』, 3월호, 81-93.  
 안종범·전승훈(2005), “은퇴자 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5-33.  
 여운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6(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4, 2006). 『고령자통계』.
- 한국노동연구원(2007).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사용자 안내서』.
- Frey, B. S. and Stutzer, A. (2002),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2), 402-435.
- Kennedy, P. (1998). *A guide to econometrics*. Cambridge, MA:MIT Press.



## 은퇴 만족도(Retirement Satisfaction) 결정요인 분석

조 운 주(성신여자대학교 복지학과 전임강사)

최근 급증하는 평균 수명의 고령화에 비해 기성 세대들의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며 퇴직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세태를 볼 때, 은퇴 이후 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은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변인이 포함되는데 경제적인 측면을 위주로 접근한 본 연구는 재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은퇴 설계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기여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대상 표집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2차 자료 분석이기 때문에 변인의 활용에 있어 제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가장 주된 변인인 은퇴 만족도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은퇴 이후 기간에 대한 변인은 포함되지 않아 은퇴 만족도를 측정할 것인지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은퇴 만족도 결정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령이 언급되었는데 연령의 범위가 45세에서 98세로 연령 폭이 넓으며 이 중 60세 미만은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령자의 연령도 the young-old, the middle-old, the old-old로 세분화되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80세 이상의 최고령 집단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은퇴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에 따라 은퇴 만족도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의 성별이 남 57.3%, 여 42.7%로 중고령층에 해당되는 인구 중 실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을 감안하여 표집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은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대개 여성보다 남성의 삶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남성과 여성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의 소유 여부 역시 자가 소유와 미소유의 비율이 3:1 가량으로 표집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서상 대표적인 보유 재산이 주택이므로 주택과 관련된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대상의 동질성 등 표집과 연관된 문제가 해결된다면 본 연구 결과는 고령자의 노후 설계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자녀 관계 만족도가 포함되었는데 가족의 지지와 같은 여러 측면의 변인을 포함시킨다면 다각도의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